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금융&BIZ

그때의 세상

지역과 시간

눈 굴리기? 돈 굴리기!



오수상

“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큰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긴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려면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이름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버핏은 올 3월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부자 목록 1위에 올랐고, 그가 설립한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는 36년 연속 이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버핏은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여러 강연에서 교훈적인 얘기를 남겨왔는데, 그 중 '눈 굴리기'에 비유한 강연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부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눈덩이가 작을 수록 큰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긴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1살 때 시작했습니다. 처음 종자돈이 워싱턴포스트를 배달해 모은 십여달러에 지나지 않았기에 56년째 언덕에서 굴렀던 것입니다."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11살 시절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였으니 과연 투자에 대해서는 일찍 눈을 떠두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일본 청소년연수소가 지난해 10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고교생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젊었을 때

꼭 해두고 싶은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답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미래의 지출을 계획해 소비와 투자를 결정할 줄 아는 금융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회가 '청소년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초등학교생은 100점 만점에 평균 56.6점, 2006년 고등학교생은 48.9점, 2007년 중학생은 55.5점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금융지식이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카드사때 때 10대 신용불량자가 40만 명이나 발생했던 것도 청소년의 금융지식 기반이 빈약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면 정부가 250~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는 유치원 때부터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에 대한 무지, 즉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에

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교육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학습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평생 동안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직 돈 문제가 몰라도 돼'라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지출계획서를 짜서 결산해 보도록 하고 관심있는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도록 하라고 권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아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속속하고 자기도 바빠요." 지금 당장은 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발등의 불처럼 여겨지겠지만, 현명한 사람일수록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시 하는 법이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면 한 개의 식사를 해결해 주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준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 중 자녀 교육 편 첫 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벼랑 끝' 내몰린 축산농 대책 서둘러야

축산농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폭등하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사육을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리다간 국내 축산업 붕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축산농민들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여파에다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43~50%나 올랐다. 가격인상은 국제 곡물가의 폭등에 지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농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축산농민들은 사료회사에 진 빚 대신 소나 돼지를 넘기고 아예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유일한 생계 수단마저 접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절박한 현실을 비판해 목숨을

끊은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한 평의 40대 축산농민이 자살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무안에서 50대 양돈 농민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료 값 폭등 등으로 늘어만 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지(死地)로 내몰린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축산농 대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료 구매자금 1조 원을 방출했다. 하지만, 연 3%의 이자에 1년 내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 단기자금이다. 대부분의 축산농이 이미 수천만~수억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국내 사료의 자급률은 겨우 1% 수준이다. 사료 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 작물 전량 수매 등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가대책은 지금처럼은 사료회사에 진 빚 대신 소나 돼지를 넘기고 아예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유일한 생계 수단마저 접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절박한 현실을 비판해 목숨을

집권여당 재·보선 '참패' 당연한 결과다

6·4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시됐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100일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출범 초기의 과잉인사와 대운하 건설을 비롯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까지 국경 난맥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재·보선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9개 선거구 중 6곳에 후보를 냈지만 경북 청도에서만 승리했다. 지난해 대선과 4월 총선에서 압승했던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에선 통합민주당에 패배했고 텃밭이라는 영남권 3곳에서도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다. 광역 및 기초의원 43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당선자는 8명에 그쳤다. 수도권 16개 선거구에선 2곳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6명의 당선자를 낸 통합민주당 성적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연승가도를 달려온 재·보선

'불패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과반의석을 안겨주었던 민심은 불과 두 달여만에 180도 달라졌다. 전종적 지지세력인 보수층마저 속속 이탈하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재·보선 참패는 청와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 등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여권이 적지 않은 총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냉엄한 민심을 확인한 이상, 청와대와 여권이 할 일은 명확하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 혁신도시 재검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국정 현안은 수두룩하다.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정치를 펼칠 주문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백영곤 지극은안화도 더위와 일찍 시작돼서 일까. 요즘 피부과에는 때 이른 여름철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피부질환으로는 무좀이나 어루레기 같은 곰팡이감염(피부진균증), 농가진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 있다. 또 따따로 알려진 홍색한진, 노출과 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자외선으로 인한 일광화상 및 각종 광과민성 피부염 등도 많다. 피부진균증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좀의 원대 명칭은 족부백선이다.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몸통이나 팔다리에 발생하면 체부백선, 사타구니에 발생하면 고부백선(또는 완선), 손톱이나 발톱에 발생하면 조갑백선으로 불린다. 한 자각증상이 없다면 쉽게 피부과 문턱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려움증도 어느 통증 못지않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가려움증으로 가끔 외래에 병초산과 같은 식초와 정로환 등으로 무좀치료를 시도해보는 심한 환자를 입에 환자들도 있다. 이런 민간치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때우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이다. 가려움증은 연고도포안으로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며 최근에는 경구 항진균제의 발달로 수주 간의 약물 치료만으로 어렵지 않게 피부진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가진은 주로 피부면역이 약한 소아들에게서 발생한다. 수포가 발생하거나 진물이 나는 붉은 반점이 하나둘씩 생

기고 장상근 랜드마크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시범 지원사업 등 6개소에 야간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빛의 도시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2009년 광역스포츠, 빛의 축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빛고을 밝은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는 빛의 도시 만들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도시의 야경을 전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조망공간의 조성, 빛의 도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 공원 및 공공장소, 공공건물 경관조명 사업 등 총 9개소 840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7세기 루이 14세 때 파리에 설치된 가로등은 도시 조명의 최초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명은 도시문화 번영의 상징으로 점점 도시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도시공간의 아메니티(Amenity)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공간에 넘쳐나는 빛 그 자체로 풍요로운 공간 및 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현대의 도시는 유흥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극적인 상업조명으로 빛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꼭 필요한 부분은 어둠에 가려져 빛의 조화성과 장소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교량 경관조명

병원 진료용 가운 돌려입기 '비위생적' 몸이 허약해 병원을 자주 찾는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진 촬영이나 진찰을 위해 갈아입는 가운의 위생상태다. 깨끗이 세탁된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수 십 번 입었던 것을 내놓기 때문이다. 필자보다 앞서 가운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테고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말이다.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가운에서 냄새도 난다. 찜질방에서도 깨끗이 세탁된 새 옷을 주는데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가운 하나도 수십명이 돌려입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 관념이 찜질방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 회사 동료들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오면 가운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결함을 느끼는 가운 돌려입기를 당장 개선해 주길 바란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절제된 빛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 의 개선사업에 나섰다. 기존의 밝고 강하며 화려함에 치중했던 16개 교량에 대해 직접조명에서 간접조명 방식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밝은 빛을 피하고, 은은한 감성조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밝고 화려한 기존 경관사업에 대한 내부반성 속에서 나온 조치로 우리 시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광주시에서는 2004년 '야간경관지역 별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외공원 무지개다리, 사직공원 팔각정 등 18개 공공시설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경관조명 설치를 권유하여 상무지구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민간 대형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완료하였다. 올해는 중외문화예술벨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금남로), 시청 앞 미관광장, 운천저수지와 조산대·전남대 등 있는 번화가 나왔다. 아이를 시켜 이 번호를 게임 사이트 결제창에 입력했더니 사이버머니가 액면가 만큼 충전되었다. 게임을 잘 하려면 갈이나 갑옷,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이 충전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쓰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카드의 부모의 동의 없이도 마음 놓고 사서 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충전카드를 아이들이 아무 꺼리낌없이 사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無等鼓 재도전의 조건 재우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애초 광주는 카잔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하지만, 투쟁을 열어보니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국제 스포츠계의 철저한 정보 파악과 비장의 승부수 마련도 재도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